

연안정주지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 어항(송정항, 구덕포항, 공수항)을 중심으로-

권도현¹, 이석환^{2*}

¹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²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The Characteristics of Coastal Settlements -Focused on the Fishery Ports(Songjeong, Gudeokpo, Gongsu) in Busan-

Do-Heon Kwon¹ and Seok-Hwan Lee^{2*}

²¹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so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Urban Design & Development, Kyungsoong University

요 약 연안정주지에는 다양한 유·무형의 지역자산이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민감한 곳이다. 연안정주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산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첨예한 주민에 대한 고려 또한 미흡하다. 그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안정주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연안정주지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부문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연안정주지 개발은 지역주민의 소외와 갈등, 그리고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장소성 상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재생의 관점에서 연안정주지의 구성요소 및 유형을 구분하여 부산지역 어항(漁港) 일대의 연안정주지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연안정주지의 공간적·물리적 재생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을 포함한 지역 문화(전통성과 지역성) 보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강화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생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연안정주지의 매력과 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Coastal settlements have a diversity of tangible or intangible local assets and ar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The value of tangible or intangible local assets is often overlooked and there is no enough consideration for the inhabitants who have a various and acute stak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astal settlements. The development of coastal settlements without consideration for the local circumstance, resident's needs, and local characteristics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sustainable regeneration. There are also alienation, conflicts, and the loss of a authentic sense of place because of physical oriented development without regard to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This research defines the components and types of coastal settlements and draws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round the fishery ports in Busan in the aspect of sustainable regeneration. It will be the important methods for an integrated regeneration including not only spatial and physical regeneration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regeneration which has the preservation of local culture with living conditions, local economy activation, and community building. It will also provides the bas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tra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of coastal settlements.

Key Words : Coastal Settlements, Local Assets, Sustainable Regeneration

1. 서 론

최근 연안지역의 재생에 대한 논의는 과거 산업기능

위주의 개발에서 지역민의 삶과 밀착된 장소로서 주거생활기능 중심의 복합용도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단일 용도로 사용되었던 연

본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2R1A1A2008593)

*Corresponding Author : Seok-Hwan Lee(Kyungsoong Univ.)

Tel: +82-51-663-4791 email: lshsun@ks.ac.kr

Received February 26, 2014

Revised March 4, 2014

Accepted March 6,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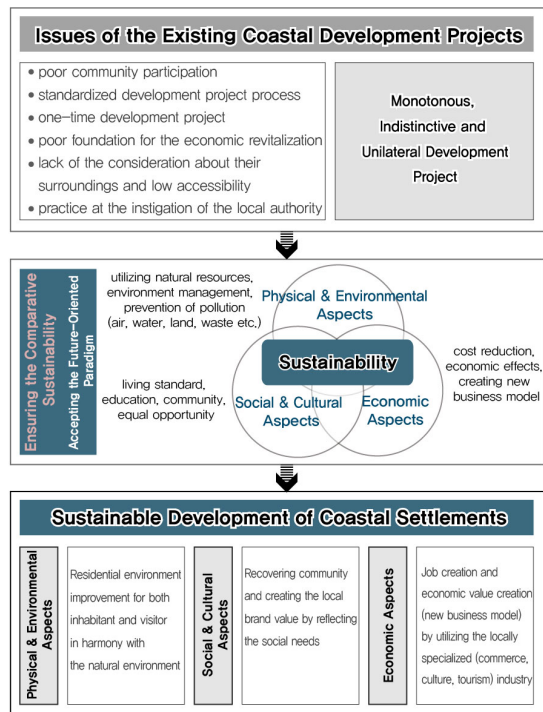
안공간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하에 연안공간의 지역성 및 역사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자연 어떠한 연안공간의 개발방식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장기적인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안공간의 재생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 및 생활기반을 정비하는 물적 계획과 지역의 소득 증대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향하는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안공간의 재생은 공간자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안공간의 재생은 정주지를 백지상태로 만든 후 거기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정비방식 중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전면철거방식의 개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공간 확장식의 개발방식은 순환, 공생, 균형 등 자연의 과정에 대한 고려나 인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불가능한 접근방식이다. 또한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단일목적 위주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지역 정체성(identity)과 장소성(placeness)을 상실한 연안공간을 양산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주민의 소외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공간의 물리적 패턴의 지속성 부재와 지나친 상업적 특화로 인해 연안공간의 공간적·사회적 연속성 및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Fig. 1] Two Different Aspects of Coastal Development Projects in Busan
(a) Marine City of Haeundae
(b) Hangri Port of Kijang

특히 연안공간의 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이용 주체들 간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없이 단순히 부동산 가치 중심의 논리에 지배됨으로써, 보다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지 못하고 단순한 물리환경적 측면에 편향되어 개발 및 개선이 비체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의한 공간자본의 증식은 지역의 고유성과 시간적 연속성을 파괴함으로써 장소가치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Fig. 2] Sustainable Regeneration of Coastal Settlements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연안지역재생의 관점에서 연안정주지의 구성 및 유형을 구분하여 연안정주환경 특성 도출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부산지역 어항일대 정주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연안지역재생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된 정주환경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안정주지의 구성 및 유형

2.1 연안정주지

연안정주지는 국내 연안관리법상 해안선으로부터 500m 범위 안의 지역(항만, 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km)에 속해있는 육지지역을 말한다. 이는 강이나 호수, 바다를 따라 잇닿아 있는 육지인 연안(沿岸)과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땅인 정주지(定住地)의 합성어로서 크게 두 가지 즉, 공간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간적 관점’으로서 연안정주지는 육지와 강,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서로 상호공생하며, 환경적으로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자연환경에 해를 끼

치지 않고 인간 활동을 자연과 조화시키는 인간적 규모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정착지로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관점으로서 연안정주지는 자연·지리적으로 인간 활동에 유리하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간 이용형태를 지닌 일정한 지역적 경계를 가지고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를 생활공간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실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연안정주지란 생태환경적으로 통합된 장소로서 구성요소들 간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발적 참여의식을 가진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통합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장소라고 이해한다.

2.2 연안정주지의 구성요소

연안정주지란 연안과 인접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물리적 구조를 갖추고,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생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생명체로서의 대응이자 사회 변혁적 모색이라 할 수 있다.

[Table 1] Key Components of Coastal Settlements

Aspect	Key Components and Elements
Physical & Environmental Aspect	<Adjacent to the coast, Having fishery port fac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ition of natural environment • Settlement patte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ent zoning state (residential, green etc.) - Accessibility(traffic, walking) • Spatial structure & main fac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ery port facilities/Tourist facilities - Processing equipment for fish - living facilities
Social & Cultural Aspect	<Community formation around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 Community organization • Local consciousness and felling • Local history / Local event • Community facilities / Forming community spirit
Economic Aspect	< Fisheries or tourism oriented economic activ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pulation and households engaged for fisheries, the status of fishing fleet • Local fishery products status • Fishery related st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ery related infrastructure and rights - Surroundings' development condition • Tourism related status

며, 공동체적 특성을 통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하려는 인간의 의도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안정주지역 개발 및 정비 형태는 물리·환경적 요소 위주로 다루어져 왔지만 연안정주지역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물리·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장소로서 사람들과 활동, 그리고 그것을 담는 소환경(setting)이 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과 활동, 소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 조화의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연안정주지역은 연안과 인접하여 있고 항만, 어항, 산업단지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촌계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업 또는 관광 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3 연안정주지의 유형

전통적 의미에서 정주지는 공동체의 공간적 기반(생활공간) 또는 물리적 환경에 기초하여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관계, 생활양식, 공동체적 의식이 형성된다. 정주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연안지역을 다양한 기능·성격·형태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정주지는 지리·환경적 여건에 따라 도심 내부에 위치한 도심형(광안리해수욕장, 민락항 등), 도심인접형(송정항 등), 도심외부형(대변항, 학리항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생산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유형에 따라 연안에서 생산되는 어종 및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어업경제활동 중심형(이동항, 대변항 등), 연안(바다)의 수려한 경관이나 해양 및 어업체험 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관광·여가 경제활동 중심형(해운대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등), 두 유형이 복합된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연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어업, 관광, 산업 등)이 자연에 의해 쇠퇴(모래유실, 자연재해 등)

[Table 2] Four Types of Coastal Settlements

Aspect	Types of Coastal Settlements
Type A	Classification by geographic location (Urban, Suburban, Rural)
Type B	Classification by economic activity (fishery oriented /Tourism oriented/ Mixed fishery-tourism activity)
Type C	Classification by local decline or regeneration (Industrial function / Tourism attractiveness / Residential function decline)
Type D	Classification by housing type (Multi-family housing, Single-family housing, Mixed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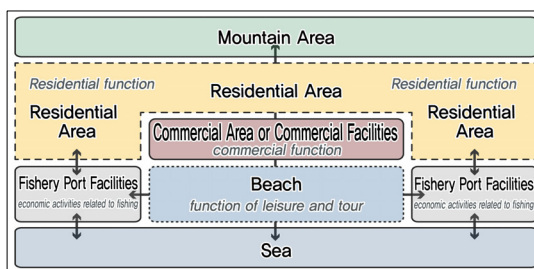
하거나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산업기능 쇠퇴형, 관광매력 쇠퇴형, 주거기능 쇠퇴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연안에 입지하고 있는 주거형태에 따라 공동주택 밀집형, 단독주택 밀집형,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부산지역 연안정주환경

3.1 부산지역 연안정주지 현황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연안의 개념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는 것으로 연안육역을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 연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연안정주지역은 어촌·어항 법에 의한 부산시 어항일대 정주지역으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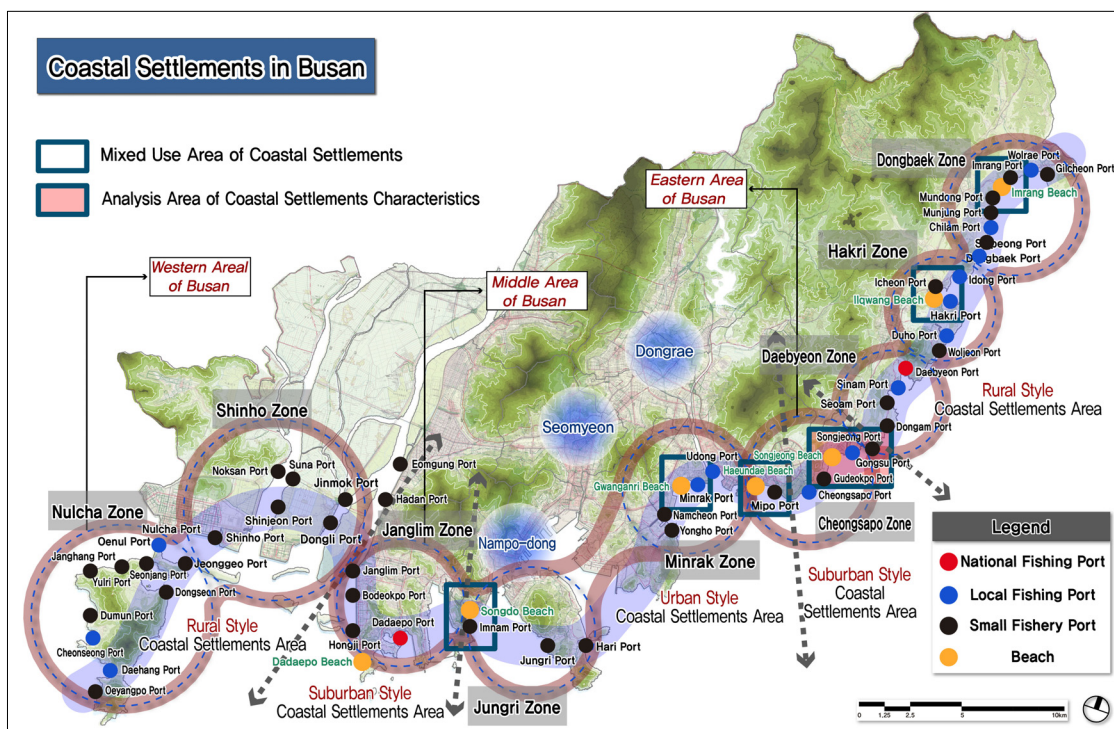
부산시 관내의 어항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개소이며, 국가어항2개소, 지방어항 14개소, 소규모어항 36개소이다. 동부산권역인 기장군, 해운대구에 가장 많은 23개의 어항이 있으며,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10개소 소규모어항 1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중 부산권인 수영구, 남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에는 총 12개의 어항이 있으며,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1개소, 소규모어항 10개소



[Fig. 3] The Pattern of Coastal Settlement in Busan

로 구성되어 있다. 서 부산권인 강서구에는 총 17개의 어항이 있으며, 지방어항 3개소, 소규모어항 14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어항일대 정주지역은 어항을 중심으로 정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어항중심정주지역과 해수욕장과 어항이 인접 위치하여 있는 복합형정주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산시 내 복합형정주지역은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일대 등이 있으며 이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연안정주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지역의 정주환경은 바다로부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어항시설과 상업시설이 인접하여 있고 그 뒤로 배후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2절에서는 송



[Fig. 4] Current State of Coastal Settlements in Busan

정생활권인 송정항, 공수항, 구덕포항, 송정해수욕장 일대의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부산시의 대표적인 연안정주환경 타입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3.2 송정일대 연안정주환경 특성

송정항, 공수항, 구덕포항은 송정해수욕장, 송정역, 송정천과 인접하여 송정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이 일대는 해운대 청소년 수련관, 송정 마리나, 달맞이고개, 송정공원, 숙박시설 등이 위치하여 송정해수욕장과 함께 다양한 관광객들의 여가휴양관광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일대는 해운대구에서 청정식품 존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2014년 현재 동해남부선 복원사업(부산 그린 레일웨이),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2017년 완

료예정)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매년 송정미역축제, 부산 바다축제 등 지역축제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어항일대의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정이란 지명은 광주노씨의 선조가 완만한 백사장이 내려다보이고 해송림이 울창한 언덕에 정자를 지은 데서 연유하며, 지금의 송정해수욕장의 일원은 원래 가래포라 불렀는데 가래는 갈대를 가리키는 사투리이고 송정천과 바닷가 맞닿는 곳에는 넓은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송정해수욕장은 연 3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송정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하여 지방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항기본시설로는 방파제(145m), 물양장(242㎡), 방사제(113m) 등이

[Table 3]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oastal Settlements of Songjeong Area

Aspect	Songjeong Fishery Port	Gudeokpo Fishery Port	Songjeong Beach	Gongsu Fishery Port
	Songjeong-dong, Haeundae-gu, Busan			Sirang-ri Gijang-gun, Busan
Physical & Environmental Asp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ural green area fishery port facilities : seawall (145m), lighters wharf (242㎡), sand arrester(113m) Mt. Meongdu, Songjeong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ond-class general residential area fishery port facilities : seawall (88m), lighters wharf(30㎡) Mt. Meongdu, Mt.Sira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d)Songjeong Station, Jukdo Park Haeundae juvenile training center Songjeong Marian, accommodation facilities Songjeong Stream, Mt. Kwakgeol the Donghaenambu line, Busan-Ulsan express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rst-class general residential area fishery port facilities : seawall (188m), lighters wharf(191m), shore protection(195m) Mt. Jang, Dalmaji Hill
Social & Cultural Asp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pinus thunbergii forest, pavilion Single Clan Village (Gwangju No family name) Ilbonjeong old pine tre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legend about a p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morial ceremony at midnight on Jan. 14 and Jun. 14 of the lunar calendar every year ancestral rites for the dragon king, pole erected to honor a successful civil service examinee, Janggunje (village-ritual ceremony) Single Clan Village (Haman Jo family n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raepo, field of reeds Busan Sea Festival Songjeong Sea mustard Festival special management district for the clean food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morial ceremony on Jan. 15 and Jun. 15 of the lunar calendar every year story about one couple with Hong family name and Jang family name Sirangdae, Legend about Haksam Cave
	relaxation, experience, tourism, culture : Donghaenambu line restoration(Busan Green Railway), East Busan Tourism Complex(Expected Year of Completion : 2017)			
Economic Asp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mber of fishery workers : above 70 persons marine aquaculture industry, sea mustard aquacultur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mber of fishery workers : above 40 persons marine aquaculture industry, coastal fishery (sea mustard & anchov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total number of tourists : three million each year The economic effect of Busan beaches: ₩2.7 trillion(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mber of fishery workers : above 360 persons making fishery experience tourism villages marine aquaculture industry, demarcated fishery (sea mustard aquaculture industry & fishery without oxygen fee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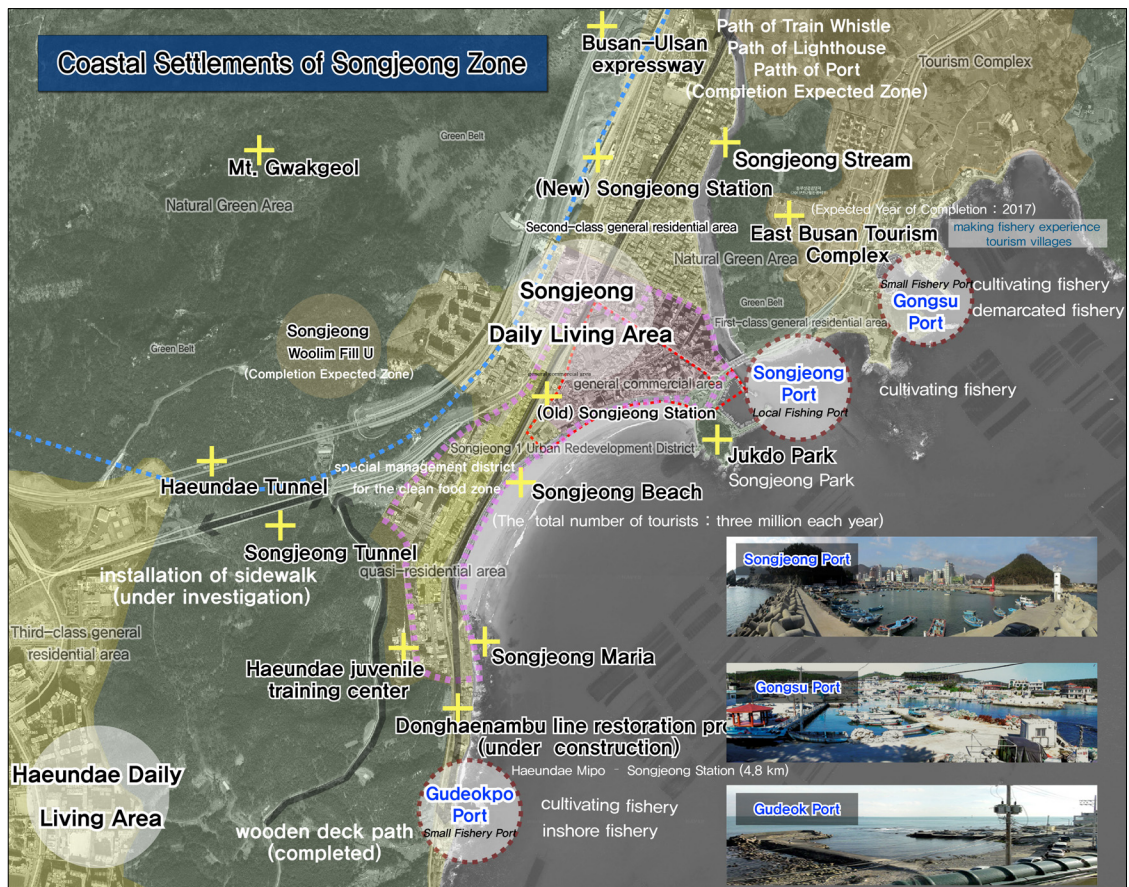
있고, 어업권 종사자수는 70여명으로 주 어업은 양식어업과 미역양식어업 등이다. 송정항과 주변 배후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송정공원, 송정천과 인접하여 있다.

구덕포항은 조선조 말기인 약 300년 전에 동래군 원남면의 아홉 포구 중의 하나로 그 당시 함안 조씨 일가가 이곳에 정착함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하여 소규모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항기본시설로는 방파제(88m), 물양장(30m²) 등이 있고, 어업권 종사자수는 40여명으로 주 어업은 양식어업과 연안어업 등이다. 서남쪽 산기슭에는 당사가 있어 매년 음력 정월 14일과 6월 14일 자정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 뒤 용왕제에 이어 거터대 장군제가 지내진다. 구덕포항과 주변배후지의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항 진입은 송정해수욕장을 통하여 어항까지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이며 낚시꾼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어항 서측에는 동해남부선이



[Fig. 5] Current State Photo of Songjeong Neighborhood
(a) Songjeong Port (b) Gongsu Port
(c) Gudeokpo Port (d) Songjeong beach

인접해 있으며 어항 남측으로는 급경사지 및 암반으로 되어 있어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Fig. 6] Coastal Settlements of Songjeong Area

공수항은 마을의 형성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 마을에 제일 먼저 홍(洪)씨 장(張)씨 부부가 입주하여 살았고 그 부부가 공수마을을 개척하였다 하여 후세 동민이 홍씨 할아버지를 등두암에 장씨 할머니는 마을 안에 있는 제당에 각각 모시고 매년 음력 보름과 6월 15일 2회에 부락의 안녕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이 마을에는 사랑대에 얽힌 전설과 학사암 동굴에 얽힌 전설이 있는 곳이다. 부산광역시 기장을 사랑리에 위치하여 소규모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항기본시설로는 방파제(188m), 물양장(191m²), 호안(195m) 등이 있고, 어업권 종사자수는 360여명으로 주 어업은 양식어업과 구획어업 등이다. 원시어업인 지인망(후릿그물) 어업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하여 많이 방문하는 곳이며, 특히 도시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체험 관광마을(해수부 지정)로 조성되어 있다.

송정일대 연안정주환경은 어항시설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배후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여가휴양시설이 밀집해 있고, 다수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체험·문화·관광산업과 어업을 주요경제활동으로 한다. 다양한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생활하는 이 지역은 부산의 대표적인 연안정주지역 타입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부산지역 내 연안정주지역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기에 직면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수변 재생계획과 관계없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수변공간의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적 자원 이외의 부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경관과 환경 정비에 대한 무분별한 대응은 연안정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던 고유의 장소적 특성을 상실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지속가능한 연안정주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연안정주지의 구성요소 및 유형을 구분하고 부산지역 어항(漁港) 일대 중 복합형 연안정주지역의 표본지역으로서 송정일대 연안정주환경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는 상업성 위주의 연안지역 개발에서 다양한 생활환경을 포함한 통합적인 재생을 통해 연안정주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연안정주지역 재생은 연안정주지역의 유형, 구성요소,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는 첫째, 연안정주지의 구성요소를 기존에 편향되어 개발되었던 물리·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정주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연안지역을 다양한 기능·성격·형태에 따라 지리적 여건에 따른 유형, 경제활동에 따른 유형, 기능 쇠퇴에 따른 유형, 주거형태에 따른 유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부산시 연안정주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 부산시 복합형 연안정주환경 타입을 도출하고, 표본지역으로서 송정일대 연안정주환경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환경특성 분석 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위주로 현황조사가 이루어 졌고 주민의식조사 및 인터뷰 등의 심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안정주환경 특성 분석 시 지역주민과 관련된 심층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주민참여형 연안정주지역재생의 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연안정주지역의 유형별 특성 및 정주패턴에 따른 장소만들기 기법에 관한 연구와 적용을 통해 ‘연안정주지의 전통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장소적 특성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재창조’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Lee Seok-Hwan, Hwang Kee-Won, "The Ambiguous Concepts of Place and Placeness,"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vol 91, 1997, pp.169-184
- [2] Lee Seok-Hwan,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Place, Rainbowbooks, 2007, p.6
- [3] Hwang Jeong-Im, Choi Yoon-Ji, Cho Young-Sook, Won, Ji-Yoon, "Policy for Rural Population Growth in Shimane, Japa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09, p. 98

권 도 현(Do-Heon Kwon)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공학사)
- 2013년 2월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공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재생, 장소성

이 석 환(Seok-Hwan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공학사)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석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정교수

<관심분야>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경관, 장소성, 도시재생과 문화